



LA 다저스 류현진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루머에 휩싸였으나 이를 부인했다. 류현진이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을 앞두고 6일(한국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고 있다. LA | AP뉴시스

RYU '불펜피칭 논란' 잠재운다

류현진, 오늘 NLDS 3차전 선발 등판

애틀랜타 2차전 앞서 던진 불펜피칭에 LA타임즈서 류현진 몸상태 의문 제기
다저스·류현진 "괜찮다" 공식입장 밝혀
승리 땀 한국인 메이저리거 PS 첫 승

LA 다저스 류현진(26)이 실전무대에서 '불펜피칭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LA타임즈는 6일(한국시간) 류현진의 몸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팀과 선수는 "괜찮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언론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발단은 류현진이 5일 애틀랜타 원정경기에서 앞서 실시한 불펜피칭 때문이다. 선발투수는 대개 등판 이틀 전에 불펜에서 공을 던지면서 감각을 찾기도 하지만, 류현진은 그동안 한국에서도 불펜피칭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였다. 한화 입단 이듬해인 2007년 중반부터 투구이닝이 많아지면서 투구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펜피칭을 생략했다. 그리고 한화 정민철 투수코치에 따르면, 불펜피칭을

한 번 생각한 뒤 결과가 좋았던 기억 때문에 줄곧 캐치볼로 대체해왔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류현진은 자신만의 루틴을 지켜왔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불펜에서 공을 던진 것은 13승(8월 31일)을 달성한 이후 하루 통증으로 등판일이 미뤄지면서 지난달 12일 애리조나전에 앞서 9일 한 차례 실시한 게 전부다. 그런 류현진이 포스트시즌 등판을 앞두고 불펜에 들어섰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구단 의료 담당자인 닐 엘라트라체 박사와 스탠 콘테 부사장이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몸 풀기용이 아니라라는 의혹이 나온 결정적 이유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매팅리 감독은 "콘테 박사는 원래 류현진을 줄곧 지켜봐왔고, 닐 박사는 터너필드(애틀랜타 홈구장)의 불펜이 시원해서 그곳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며 재치 있게 받아넘겼다. 이어 애틀랜타와의 3차전 선발로 류현진을 예고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류현진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신빙성 있는 주장

처럼 퍼졌다. 여기에는 루키가 3선발로 포스트시즌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류현진의 어깨에 팀 운명이 걸려있다.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를 앞세워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1차전을 깔끔하게 잡았지만, 2차전에선 썩 그라인킹을 내고도 1점차 패배를 당했다. 특히 9회초 1사 후 디고든의 도루 성공을 2루심이 아웃으로 선언하면서 찬스가 무산된 게 뼈아팠다. 석연찮은 판정에 무릎을 꿇은 다저스는 안방에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버리고 있다. 다저스 입장에서 3차전 선발로 나서는 류현진의 호투가 절실한 상황이다.

류현진은 루머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3차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일(7일) 던진다. 걱정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의혹의 시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생애 첫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무대에서 호투하는 길뿐이다. 만약 승리투수가 된다면, 박찬호와 김병현도 거두지 못한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포스트시즌 첫 승을 기록하게 된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1차전을 내준 오클랜드가 2차전에서 반격에 성공했다. 오클랜드 스티븐 보그트(21번) 6일(한국시간) 열린 디트로이트와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2차전에서 0-0으로 맞선 9회말 끝내기 안타를 친 뒤 동료들과 일사안고 기뻐하고 있다. 오클랜드(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보스턴 2연승…챔피언십시리즈 진출 '-1'

ALDS 탬파베이와 2차전 홈경기 7-4 승리
오클랜드는 디트로이트에 9회말 끝내기 승

아메리칸리그 최고 승률팀인 보스턴 레드삭스가 챔피언십시리즈(CS)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겼다.

보스턴은 6일(한국시간) 홈구장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3승제) 2차전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거친 탬파베이 레이스에 7-4로 이겼다. 홈에서 열린 1·2차전을 모두 잡은 보스턴은 1승만 추가하면 5년 만에 ALCS에 진출하게 된다. 단판승부였던 타이브레이크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각각 텍사스 레인저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연파하고 기세를 올렸던 탬파베이는 탈락 위기에 몰렸다.

이날 보스턴 승리의 중심에는 찬스에 강한 백전노장 데이비드 오티스가 있었다. 1회와 8회 솔로홈런 한방씩을 터트리며 공격을 이끌었다. 보스턴은 8회와 9회 다자와 준이치, 우에하라 고지 등 2명의 일본인 투수를 연이어 마운드에 올려 승리를 지켰다. AL 서부지구 1위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콜리세움에서 열린 중부지구 1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원정 2차전에서 9회말 끝내기 안타를 터트리며 짜릿한 1-0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 1승1패로 균형을 맞췄다. 오클랜드 선발 소니 그레이는 8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했고, 시터브 보그트는 9회말 무사만루서 천금같은 끝내기 안타를 쳤다. 디트로이트 에이스 저스틴 발렌타는 7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패투했지만, 팀의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발렌틴 '60홈런' 아시아 야구 새 역사 쓰다

야쿠르트 1경기 남겨…추가 홈런 기대

메이저리그의 전유물일 것만 같던 60홈런이 아시아 무대에서 나왔다. '한 시즌 60홈런'이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은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즈의 '홈런머신' 블라디미르 발렌틴(29·사진)이다.

발렌틴은 4일 도쿄 진구구장에서 열린 한신과의 홈경기에서 0-2로 뒤진 6회말 2사 3루서 상대 선발 랜디 매시저의 바깥쪽 직구를 밀어 쳐 우측 펜스를 넘기는 동점 2점아치를 그렸다. 아시아 프로야구 최초의 60홈런 신기록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지난달 15일 한신전에서 56·57호 홈런을 터트리면서 일본프로야구 최다 홈런(55호)과 2003년 이승엽(삼성)이 세운 아시아 단일시즌 최다 홈런(56호)을 돌파한 발렌틴은 홈런 페이스를 시즌 막판까지 유지하며 대망의 60홈런 주인공이 됐다. 60홈런은 메이저리그에서도 8번밖에 나오지 않은 대기록이다. 야쿠르트는 8일



요미우리와의 한 차례 원정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발렌틴의 홈런 추가도 기대해볼 만하다.

2011년 일본프로야구에 데뷔한 발렌틴은 올 시즌 60홈런에 타율 0.331, 130타점을 기록하는 기업을 토하며 상대 투수들에게 경계대상 1호로 떠올랐다. 6월 히로시마전에서 5-4로 앞선 8회 대타로 출전했지만 고의4구로 걸려 나갔다.

한편 오릭스 이대호(31)는 6일 QVC마린필드에서 열린 지바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4번 1루수로 선발 출전해 볼넷을 3개나 얻어냈지만 안타 추가에는 실패했다. 2타수 무안타에 그친 이대호의 시즌 타율은 0.306으로 약간 하락했다. 오릭스는 3-1로 승리했다.

정지국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

특가리

직화구이 불판

세상 어디에도 없다!!
돈 벌어주는 발명 특허 불판

서커싱게 탄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작은 식습관이 건강에 큰변화를 가져 옵니다

특가리 불판은 판을 달구어 고기를 익히는것이 아니라 **불꽃의 직화 열기로 고기가 구워지는 방식**으로 고기의 육즙이 살아있고 불꽃이 고기에 닿지않아 고기등 단백질 음식이 타면서 발생하는 **벤조피렌등 각종 발암물질** 발생을 줄일수 있는 **맛과 건강 모두를** 생략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특이등록번호 제30-0563016호

고기가 타지 않아 불판 교체 NO 연기 NO 덕트 NO

직경 37cm
추가 옵션 무속물
※ 저온음향(저음/중음/고음) AA-111
구이전용(직접/간접) 800-111

찌개 전용
(중앙에 김치찌개 원장찌개 등)
*직경 18cm의 사부전용 냄비 출시

구이전용
(중앙에 두부 콩나물 김치등 요리)

가정에서 야유회나 캠핑때

- 가정에서 숯없이 **직화구이 실현!!**
- **기름이 튀지않고 연기가 안납니다**
- 고기와 찌개를 동시에 드실수 있습니다
- **과대불판 사용**으로 넉넉하게 구울수 있습니다
- **야유회나 캠핑 모임**에서 꼭 필요한 불판
- 바람막이가 있어 **바람불어도 ok**
- 숯불이 아닌 직화열로 **고기맛은 올리고**
- **벤조피렌등 발암물질** 걱정은 내렸습니다

직경 37cm
추가 옵션 무속물
※ 저온음향(저음/중음/고음) AA-111
구이전용(직접/간접) 800-111

찌개 전용
(중앙에 김치찌개 원장찌개 등)
*직경 18cm의 사부전용 냄비 출시

구이전용
(중앙에 두부 콩나물 김치등 요리)

대박집의 비밀은 불판에 있습니다

1. 고기가 타지않아 **불판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2. 직화지만 **연기가 나지않아** 덕트가 필요 없습니다
3. 불판 하나에 **다양한 요리**가 가능 합니다
4. **기름이 튀지않아** 매장이 깨끗해 집니다
5. 직화열로 **육즙이 살아있어** 고기맛이 좋습니다
6. 기존 전골렌지 사용으로 **점심메뉴 전폭이 다양** 합니다
7. 숯이 필요없는 직화라서 **인건비 및 재료비가 절감** 됩니다
8. 고기가 눌러붙지 않아 **불판 세척이 쉽습니다**
9. 신규매장 창업시 **기존 투자대비 50%이상 절감** 됩니다
(사용처 : 삼겹살/돼지갈비/갈매기살/소갈비살/막창/오리문제 등 모든구이류)

직경 37cm
추가 옵션 무속물
※ 저온음향(저음/중음/고음) AA-111
구이전용(직접/간접) 800-111

찌개 전용
(중앙에 김치찌개 원장찌개 등)
*직경 18cm의 사부전용 냄비 출시

구이전용
(중앙에 두부 콩나물 김치등 요리)

세계최초 온도편자식 발명특허

업소용제품/창업문의
010-5066-1816

직경 37cm
추가 옵션 무속물
※ 저온음향(저음/중음/고음) AA-111
구이전용(직접/간접) 800-111

찌개 전용
(중앙에 김치찌개 원장찌개 등)
*직경 18cm의 사부전용 냄비 출시

구이전용
(중앙에 두부 콩나물 김치등 요리)

(중소기업 **이트500**상품 / **mbn 아이디어**광판열전 제품소개)